

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4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 직원들의 불교 모임인 법우회는 직원들의 힐링과 휴식을 위한 '싱잉볼'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싱잉볼은 극저주파음을 발생시켜 심신을 이완하고 휴식할 수 있게 도와준다. 사진은 1월 25일 정오, 서관 지하 1층 불교법당에서 싱잉볼 명상에 참여한 직원들의 모습.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이름: _____ 소속: _____
전화번호: _____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자랑하고 싶은 반려동물
- 환자와의 감동적인 사연
- 소개하고 싶은 영화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프리미엄 족 전문점 '본죽'

'가장 속 편한 행복' 족 전문점 본죽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낙지김치죽



10,000원

전복죽



12,000원

위치: 신관 지하 1층

영업 시간: 평 일: 오전 7시 30분 ~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7시 30분 ~ 오후 3시 30분

주요 메뉴: 삼계전복죽(16,500원), 전복죽(12,000원), 쇠고기야채죽(10,000원), 동지팥죽(9,500원), 단호박죽(9,500원), 새우죽(9,000원)

추천 메뉴: 얼큰한 낙지김치죽(10,000원)

문의: 02-3010-6420

※ 해당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 메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를 위한 선물



당첨자 명단

- | | |
|------------------------------|-------------------------|
| 스카이라운지 에메랄드 코스 식사권(160,000원) | 아로마틱 핸드 워시 (50,000원 상당) |
| 노윤경(진단검사의학팀) | 김미영(중앙공급팀) |
| 스카이라운지이용권(70,000원) | 신지은(내과간호1팀) |
| 전미량(암병원간호2팀) | 달마이어 이용권(10,000원) |
| 원내 식당 이용권(30,000원) | 박소영(응급간호팀) |
| 김성희(임상시험센터) | 박지혜(영상의학팀) |
| 손소영(중앙공급팀) | 이장미(외과간호2팀) |
| 이경란(내과간호1팀) | 전미순(암병원간호2팀) |
| 이성아(마취통증의학과) | 최영진(방사선중앙팀) |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3년 2월 15일(수)
발표 제696호(2023년 3월 1일 발간)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아산병원

VOL.694 2023. 2. 1



지금 바로 실천하는 에너지 절약

우리 병원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물 중 하나다. 최첨단의 료장비를 24시간 가동하고 환자를 위해 항상 일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규모인 우리 병원은 2021년 한 해 동안 36,346TOE(석유환산톤)를 사용해 서울시에서 6번째로 많은 에너지 사용량을 기록했으며, 병원 중에서는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절약은 우리 일상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며 직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 사진은 1월 20일 건물관리실에서 우리 병원의 전력 현황을 살펴보고 에너지 절약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박동양 시설팀장(오른쪽 첫 번째)을 비롯한 시설팀 직원들의 모습. (관련기사 6면)

02 NEWS 지난해 환자 360만여 명 우리 병원 찾아

08 AMC IN(人)sight 정확한 원인에서 답을 찾다

10 웰컴 투 AMC 서울아산병원에서만 가능한 경험

20 문화·생활정보 겨울 제철 과일로 비타민 충전해요



서울아산병원 뉴스를 병원 소식을 한눈에

지난해 환자 360만여 명 우리 병원 찾아 외래 345만·입원 15만·외국인 1만 7천여 명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60만여 명의 환자가 우리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월 27일 동관 로비 모습.

남구 11만 3,349명(7.8%) ▲중랑구 5만 6,207명(3.9%) 순이었다. 지난해 우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1만 7,835명으로 2021년 1만 3,587명과 비교해 31.3%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환자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외래환자 1만 6,704명, 입원환자 520명, 건강검진 수진자 611명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 4,298명(24.1%) ▲아랍에미리트 3,197명(17.9%) ▲몽골 2,917명(16.3%) ▲중국 1,142명(6.4%) ▲카자흐스탄 983명(5.5%) ▲베트남 724명(4.1%) ▲사우디아라비아 555명(3.1%) 순이었다.(그래픽)

지난해 총 360만 7,690명의 환자가 우리 병원을 찾았다. 역대 가장 많은 환자가 내원한 것으로, 2017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20년에는 310만 479명 ▲2021년에는 358만 9,623명을 기록했다.

환자 유형별로는 ▲외래환자 345만 6,843명 ▲입원환자 15만 847명이었다. 2021년 외래환자가 343만 9,834명, 입원환자가 14만 9,789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외래환자는 0.49%, 입원환자는 0.7% 증가한 것이다.(표) 초진환자 수는 20만 5,127명으로 2021년 19만 9,308명과 비교해 2.9% 증가했다. 2022년 수술 건수는 6만 9,542건으로 전년보다 3.2% 감소했다.

외래환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44만 5,481명으로 전체의 41.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경기도 97만 7,490명(28.3%) ▲강원도 11만 6,972명(3.4%) ▲충청북도 11만 5,443명(3.3%) ▲경상북도 9만 8,961명(2.9%) ▲충청남도 9만 2,990명(2.7%) 등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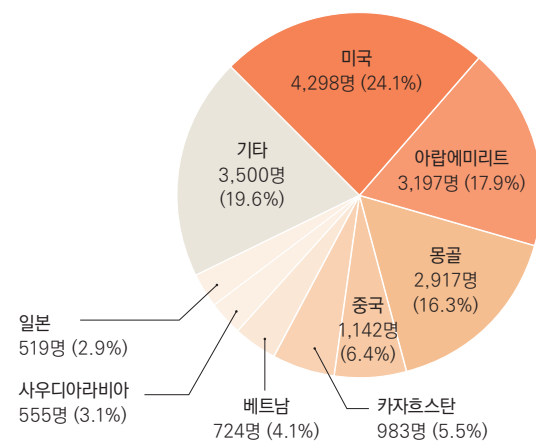
서울시 구별 외래환자 분포를 살펴보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병원 인근 지역에서 온 환자들이 많았다. ▲송파구가 44만 3,443명으로 서울 전체의 30.7%를 차지했고 ▲강동구 25만 2,217명(17.4%) ▲광진구 12만 5,061명(8.6%) ▲강

[표] 환자 수 (2017~2022년)

(단위 : 명)

연도	외래환자(연인원)	입원환자(실인원)	총 환자
2017년	2,943,284	143,232	3,086,516
2018년	3,047,946	145,390	3,193,336
2019년	2,974,392	146,057	3,120,449
2020년	2,961,233	139,246	3,100,479
2021년	3,439,834	149,789	3,589,623
2022년	3,456,843	150,847	3,607,690

[그래픽] 2022년 국가별 외국인환자 분포



타비 시술 국내 첫 연 300례

진단·시술·회복까지 체계적 시스템... 96세 환자도 안전하게 시술



심장내과 박승정 석좌교수, 박덕우 교수, 안정민 부교수(오른쪽부터)가 2022년 12월 말 80대 여성 환자에게 연 300번째 타비 시술을 하고 있다.

가는 것을 예방하는 '센티넬'이라는 혈전 포집 기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신마취 대신 수면마취를 시행해 환자의 안전하고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최소침습적 시술방법 덕분에 환자들의 평균 재원기간이 4일 내외로 짧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이 약 80세인 고위험군임에도 환자의 중증 뇌졸중 발생률, 30일 내 조기사망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우리 병원 심장병원의 최근 5년간의 타비 시술 성공

우리 병원 심장병원이 2022년 한 해 동안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TAVI, 이하 타비) 303례를 시행해 국내 처음으로 타비 시술 연 300례를 달성했다.

심장병원은 2010년 3월 첫 시술 이후 2021년 5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타비 시술 1,000례를 달성했으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1,458례를 시행했다. 해마다 시술 건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연 300례 타비 시술 성공은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심장내과, 흉부외과, 심장검사팀, 심장간호팀 등 관련된 의료진의 유기적인 팀워크가 있어 가능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타비 시술 건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손꼽히며 타비 시술을 가장 많이 하는 미국에서도 10여 개 대규모 병원에 국한된다.

심장병원은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의료진이 매주 통합진료를 통해 환자 스크리닝을 철저히 시행해 타비 시술 여부를 함께 논의하고, 시술 전 초음파·CT 등 이미지 정밀 분석을 통해 판막 사이즈와 종류를 결정한다. 또한 타비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환자에게는 시술 과정 중에 혈관에 붙어있던 혈전이 떨어져 뇌혈관으로 날아

물은 99%로 세계적인 수준이다.

타비 시술을 연 300건 이상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큰 역할을 했다. 타비 시술은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 2022년 5월부터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되면서 고령 및 고위험군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80%에서 5%로 낮아졌다. 중위험군은 50%, 저위험군은 80%를 자가부담한다. 급여 고시 전 우리 병원의 타비 시술환자 평균 연령은 79.3세였지만 급여 고시 후 환자 평균 연령은 80.6세로 단기간에 평균 연령이 1세 이상 높아졌으며 2022년 시술자 중 최고 연령은 96세였다.

심장내과 박승정 석좌교수는 "한 해 300건의 타비 시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검사와 진단, 시술과 회복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진행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팀워크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박덕우 교수는 "국내 최초·최다 타비 시술을 하며 쌓아온 우리 병원 심장병원의 독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수술이 어렵거나 비침습적인 타비 시술을 원하는 고령의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부인과 로봇수술 3,000례 달성



1월 17일 산부인과 의료진이 로봇수술 3,000례 달성을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병원 산부인과가 지난해 11월 로봇수술 3,000례를 달성했다. 2011년 로봇수술을 시작한 이후 11년 만에 이룬 성과다. 산부인과 로봇수술 건수는 2019년을 기점으로 급증했고, 2021년부터는 매년 약 1,000례의 로봇수술을 시행하며 국내 산부인과 로봇수술센터 중 최다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병원은 최신 로봇수술장비인 다빈치 SP를 비롯해 다빈치 Xi 5대와 다빈치 X 1대 등 총 7대를 보유하고 있다. 다빈치 SP를 이용해 배꼽 안쪽의 단일 구멍으로 하는 단일공로봇수술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고, 배꼽 안쪽 구멍과 8mm 피부 절개로 하는 2(1+1)공 수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유

착이 심하거나 거대 종양이 있는 고난도 수술의 경우에는 기존 다공로봇수술로 안전하게 시행한다. 양성질환에서는 ▲가임기 여성에서 자궁을 보존한 채 자궁근종만 제거하는 자궁근종 절제술 ▲자궁선근증이나 다발성자궁근종인 경우 전자궁적출술 또는 부분자궁적출술 ▲난소를 보존한 채 난소종양만 제거하는 난소낭종제거술을 로봇수술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골반장기탈출증으로 인한 로봇천공질고정술은 2020년 5월 국내 처음으로 200례를 달성했고, 오는 3월에는 아시아 최초 400례 달성을 앞두고 있다. 양성질환에서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의 각종 부인암을 로봇수술로 정밀하게 시행하고 있다. 로봇수술은 정교한 로봇팔을 이용해 3D 영상과 넓고 확대된 시야로 수술을 할 수 있어 기존 복강경 수술이나 개복수술보다 더욱 정교하고 섬세한 수술이 가능하다. 기존보다 짧은 시간에 꼼꼼한 봉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수술시간이 짧고 출혈량이 적으며 흉터가 작아 환자의 회복이 빠르다. 특히 더욱 정교한 수술을 요하는 암환자, 난임환자, 젊은 가임력 보존환자에서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혜성 산부인과장은 “다양한 부인과 질환을 환자 개개인에 맞는 최적의 방법으로 치료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표준의 산부인과 로봇수술을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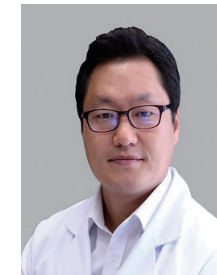
외과계 중환자 집중치료 심포지엄



1월 14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8회 외과계 중환자 집중치료 심포지엄이 1월 14일 동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중환자 치료 프로토콜 ▲집중치료 후 증후군 ▲외과감염 방지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중환자 영양치료 분야, 외과계 중환자 치료 분야의 권위자인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피에르 싱어 교수, 대만 국립양명교통대 탕 가우준 교수가 각각 ▲중환자 영양지원 최적화 방안 ▲중환자실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쳐 호응을 얻었다.

라만분광·인공지능 기반 신장손상 진단기술 개발



김준기 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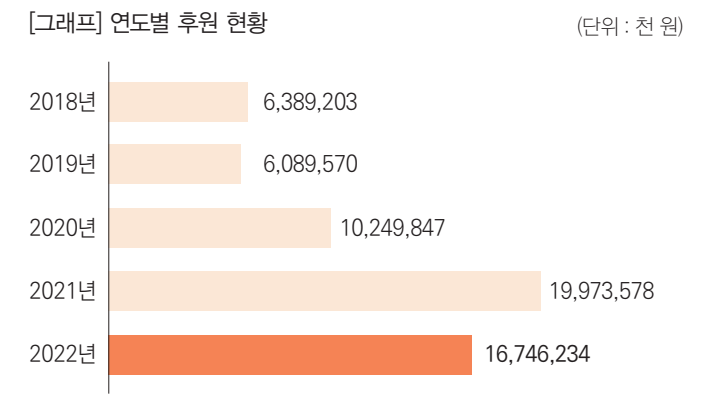
융합의학과 김준기 조교수팀이 라만분광법과 인공지능 기반의 통계처리 기법을 이용해 급성 신장손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표면 증강 라만분광법(SERS)은 물질에 산란된 빛을 관찰함으로써 물질의 성분을 구별해내는 방법이다. 연구팀은 라만 센싱 칩 위에 급성 신장손상이 발생한 쥐의 혈액과 소변을 올려놓고 SERS를 이용해 라만효과를 증폭시켜 신호를 얻었다. 이후 라만신호에 기능성분 지도(PLS-DA) 메커니즘을 접목해 신장기능 평가를 진행했다. 혈액과 소변의 SERS 분석 결과 급성 신장손상 진단을 위한

신장기능 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페닐알라닌(Phe), 티로신(Tyr) 등으로 검출됐다. 연구팀은 아미노 Ⅲ형과 달리 페닐알라닌과 티로신이 신장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인자임을 확인했으며, 라만신호 영역을 더 크게 사용하자 평가 정확도가 향상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존의 PCA 통계분석을 통해서는 라만신호의 데이터 분포와 진단 가능성을 검토할 수 없었으며, 라만신호를 PLS-DA 메커니즘에 접목해 분석했다니 혈액과 소변에서 99.3%, 99.9%의 정확도로 신장기능 평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사업으로 진행됐으며, 미국화학회가 발간하는 화학분석학 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애널리티컬 케미스트리」에 최근 게재됐다.

2022년 후원자 3,416명, 167억여 원 후원

2022년 한 해 동안 3,416명의 후원자가 우리 병원에 167억 4,600여만 원을 후원해 3년 연속 100억 원 이상 후원금을 기록했다.(그래프) 후원금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병원발전기금 103억 원 ▲불우환자 지원기금 52억 8,129만 원 ▲연구기금 8억 8,837만 원 ▲모아사랑 기금(직원들의 급여 끝전 모으기) 1억 4,934만 원 ▲교육기금 1억 2,663만 원 순이었다. 후원자는 ▲개인 389명 ▲단체 141곳 ▲직원 2,886명으로 집계됐다. 금액별로는 ▲1억 원 이상 82명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13명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1억 원 이상 후원자는 6명 늘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후원금은 ▲차세대 유전체정보관리시스템 구축, 4K UHD 영상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개선, 환자 확인 바코드 리딩 시스템 구축 등 병원발전기금 과제 124건 지원 ▲장기이식, 암, 희귀난치 질환, 안과 및 척추질환, 심뇌혈관 질환 투병 중인 불우 환자 660명 지원 ▲알츠하이머, 대장암, 림프부종, 신장암 등 관련 연구 과제 18건 지원 ▲메

타버스 심폐소생술 교육, 간호술기 VR 교육 콘텐츠 개발 등 교육 과제 4건 지원에 사용됐다. 최재원 대외협력실장은 “기존 후원자의 지속적인 후원과 더불어 이들의 소개에 따른 신규 후원 사례가 많았기에 지난해에도 높은 수준의 후원 금액을 달성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후원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 제안 등을 바탕으로 후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에너지 절약으로 에너지 사용량 매년 증가... 지난해 에너지 비용 320억 원



시설팀 이성훈 주임, 박성수 사원(왼쪽부터)이 1월 27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설치한 감염관리센터 폐열회수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너지효율 혁신'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원효율화 운영 TF,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임종진 관리부원장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선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불필요한 전등을 소등하고 퇴근 시 멀티탭 전원 끄기, 냉·난방 시 창문 닫기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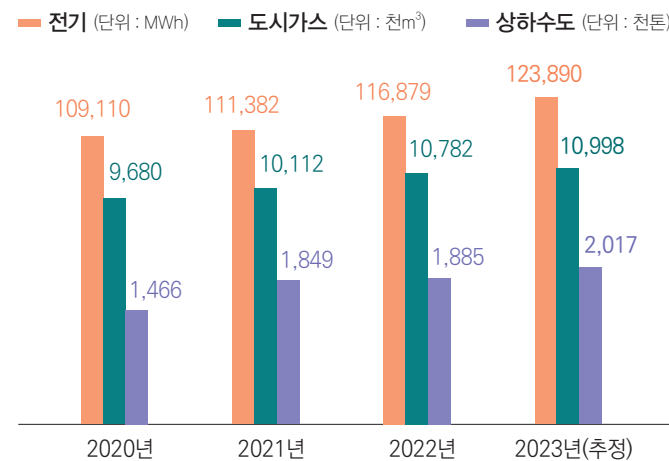
우리 병원의 에너지 사용량은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 109,110MWh, 111,382MWh, 116,879MWh ▲도시가스 9,680,000m³, 10,112,000m³, 10,782,000m³ ▲상하수도 1,466,000톤, 1,849,000톤, 1,885,000톤을 각각 사용했다.(그래프1)

이에 따른 비용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2021년(247억 원) 대비 약 30% 늘어난 320억 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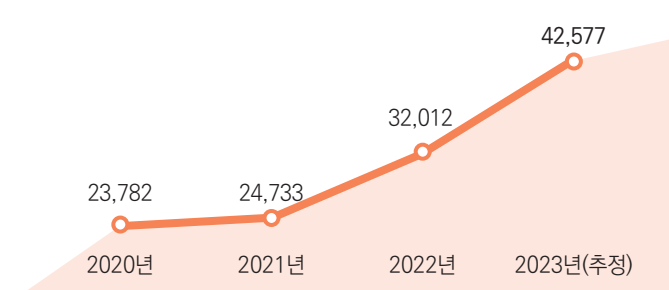
올해 역시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용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1981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올해 전기는 123,890MWh, 도시가스는 10,998,000m³, 상하수도는 2,017,000톤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요금 인상을 감안했을 때 2022년 대비 100억 원 넘게 늘어난 약 425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그래프1·2)

우리 병원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LED 램프 교체 ▲태양광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폐열회수 장비 설치 ▲지하유출수 정수 재활용 등을 시행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서울 에너지 소비 TOP 100 건물 에

[그래프1]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사용량 (2020~2023년)



[그래프2] 에너지 비용 (2020~2023년) (단위: 백만 원)



'경찰 건강관리 연구과제' 경찰청장 간담회



박승일 병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왼쪽 일곱 번째, 여덟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찰 인적자원 향상성 관리 플랫폼 연구개발'에 대해 논의하

기 위한 간담회가 1월 18일 동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박승일 병원장 등 우리 병원 경영진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박승일 병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심정내과 김대희 교수를 비롯한 연구자들의 발표가 이어졌고 관련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병원은 경찰관의 불규칙한 직무가 심뇌혈관질환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이번 연구개발의 주관기관을 맡고 있다.

박승일 병원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24시간, 365일 근무한다는 점에서 의료인과 경찰관은 비슷한 부분이 있다. 경찰관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이번 과제를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단검사의학과 'CAP 인증' 획득



임상검사실 정도관리의 국제 기준으로 인정되는 CAP(미국병리학회) 인증서.

진단검사의학과가 최근 CAP(미국병리학회) 인증을 획득했다. CAP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임상검사실 인증기관으로 꼽히며 CAP 인증은 임상

검사실 정도관리의 국제 기준으로 인정된다. 진단검사의학과는 지난해 10월 17일 8명의 CAP 심사단으로부터 검사결과의 정확성, 검사실의 환경·안전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았으며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미나 진단검사의학과장은 "이번 CAP 인증을 통해 우리 병원 검사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임상정보학' 과정 개발



정보의학과 이재호 교수가 K-MOOC '임상정보학' 강의를 하고 있다.

정보의학과 이재호·김규표 교수, 이유라·오지선 부교수, 빅데이터연구센터 유소영 조교수 등 13명이 개발에 참여한 '임상정보학' 과정이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에 개설됐다. 앞서 우리 병원에서 개발한 '정보의학개론'과 '소비자건강정보 도구와 모바일 헬스케어'에 이어 세 번째다.

'임상정보학'은 임상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학 정보 및 지식의 효과적인 사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 모든 과정은 2월부터 연 4회 분기별로 운영된다.

※ K-MOOC 홈페이지 주소 : www.kmooc.kr

정확한 원인에서 답을 찾다



신경과 김범준 부교수

“경동맥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다리 혈관이 막힌 곳까지 발견해 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장판지가 붓고 걸을 때마다 무릎이 잘 굽혀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뛰어다닐 정도로 좋아졌어요.” 환자가 보낸 편지에는 회복의 기쁨이 담겨 있었다. 김범준 부교수는 환자들을 만나면 즐거운 순간이 많다. 침대에 누워 이송됐던 환자가 걸어서 나가고 혈압이나 혈당 등 안 좋았던 지표가 목표한 범위 안에 들어갈 때가 그렇다. “뇌경색을 치료하면서 가장 좋은 건 환자들에게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자를 보며 꿈을 꾸다 의사가 되기로 한 건 고등학생 때 지하철역에서 경련을 하며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서다. 돕고 싶지만 막상 뭘 해야 할지 몰랐다. 일단 119에 전화한 뒤 마스크에서 본 기억을 더듬어 기도를 확보했다. 이내 구조대가 도착하고 환자는 조금씩 의식을 되찾았다. “눈앞에서 벌어진 응급 상황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의사가 되면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의대에 진학했죠.”

흔히 의학은 외울 게 많아 힘들다고 하지만 그만큼 재미도 무궁무진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길을 걷다가도 ‘왜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 끊임없이 질문하셨어요. 당시에는 정말 싫었는데 어느새 제 사고 패턴으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의대에서 신경과 질환의 증상과 원인을 찾아 치료에 적용하고 증명하는 과정이 흥미로웠거든요. 특히 복잡하게 연결된 뇌 회로는 다양한 증상마다 정확한 인과 관계가 있었어요. 뇌 질환이 생긴 패턴

이나 혈관 모양을 보며 논리적인 원리를 찾아 처방하면 예상대로의 결과가 딱 맞아떨어진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 신경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환자 맞춤형 치료 같은 뇌졸중이라도 원인은 다양하다. 혈관이 좁아져서, 심장에서 날아간 혈전 때문에, 조그마한 혈관 하나가 막히는 등의 원인에 따라 치료 방향도 크게 달라진다. 다른 병원에서 뇌경색의 원인을 찾지 못한 환자가 찾아왔다. 오랫동안 일반적인 뇌경색 치료만 받다 보니 호전되지 않았던 것이다. 김 부교수는 뇌경색이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고 왼쪽 심방이 커진 것을 보며 숨어있는 심방세동을 의심했다. 몇 달간의 집요한 추적 검사 끝에 예상한 대로 심방세동을 밝혀냈다. 그에 맞는 약을 결정하면서 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뇌경색으로 입원한 환자분들이 검사를 많이 하는 이유를 묻곤 합니다. 뇌경색 치료는 원인을 정확히 밝혀서 최적화된 치료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상 방향에 따라 검사 내용도 다 다르고요.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과정인 거죠.” 실제로 국내 데이터에 따르면 뇌경색의 20%는 원인 불명인 데 반해 우리 병원은 7~8%에 불과하다. 그만큼 우리 의료진이 정확한 원인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 부교수는 최근 3D프린터를 이용해 혈관 모양에 따른 진단 용력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뇌경색의 원인과 기전을 밝혀 환자에게 맞춤 치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공학자인 아버지에게 평소에도 혈류 역학적인 문제를 자주 여쭈었어요. 그러면서 공학자들과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고 의학과 공학 간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잘 아는 의사, 질병을 잘 아는 환자 뇌경색이 여러 번 재발하는 환자들은 그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 간혹 사소한 이유로 약을 중단했다는 환자들의 이야기에 가슴이 철렁하곤 한다. 약을 끊으면 재발 위험이 3~4배 높아지기 때문이다. “충분한 고민 끝에 결정한 약이고 약의 부작용이 장기적인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다른 약으로 교체할 수 있어요. 당장의 증상 개선만이 목표가 아니라는 걸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치료 과정에서 많은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김 부교수는 환자들이 들고 온 외래 진료 안내서의 뒷면을 적극 활용한다. 그림을 그려 설명하며 환자의 검사 수치와 목표 수치, 처방약의 의미 등을 모두 적는다. “환자가 자기 몸을 제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진료실을 나서는 순간 설명 내용을 까맣게 잊게 되죠. 처방한 약의 효과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대처를 충분히 설명하며 적어드리고 있어요. 환자가 치료의 한계를 알고 장애가 남더라도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도 하고요.” 환자와 가족들은 급성 뇌경색으로 경황이 없고 질병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을 때 김 부교수가 친절하게 설명해 준 것을 가장 고마워한다. “환자 입장에서 느끼는 도움이나 감사는 꼭 의학적인 부분에서만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사가 얼마나 환자를 이해하고 고민했는지를 보는 거죠. 환자의 치료 의지로도 연결됩니다. 그렇게 쌓인 신뢰 관계가 의사로서 느끼는 자부심이 됩니다.”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병원보는 'AMC IN(人)sight' 코너를 통해 진료·교육·연구 분야에서 새 길을 개척하고 도전하는 의료진을 매월 한 차례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만 가능한 경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페라스 알쇼머 임상강사



페라스 알쇼머 임상강사가 해외연수자 수료증을 들고 지도교수인 성형외과 홍준표 교수(오른쪽), 최종우 교수(왼쪽)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페라스 알쇼머 임상강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빅5 병원 중 하나인 '킹 압둘아지즈 메디컬시티 리야드'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성형 및 재건수술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2021년 10월부터 우리 병원에서 성형외과 홍준표 교수와 최종우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다. 페라스 알쇼머 임상강사를 만나 우리 병원에서의 연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실>

서울아산병원을 알게 된 계기는?

학회와 저널 등을 통해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의료진이 초미세 재건수술 분야에서 이룬 수많은 성과를 접할 수 있었고, 앞서 서울아산병원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온 사우디아라비아 동료들의 적극적인 추천도 있었다. 이곳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 동료들과 서울아산병원에 감사하다.

연수 생활은 어땠는지

성형외과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홍준표·최종우 교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어 큰 영광이다. 난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다.(웃음) 서울아산병원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케이스를 많이 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더라도 잘 갖추어진 시스템과 팀원 간 협업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각각의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목표를 이루는 것이 서울아산병원의 경쟁력인 것 같다.

무엇을 배웠는지

다른 곳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의 연속이었다. 미세수술, 초미세수술, 로봇수술, 3D 프린팅, 최첨단 초음파 기술, 인공지능 등 서울아산병원에서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옆에서 보고 배울 수 있었다. 내 전공 분야인 두경부 재건, 안면 재할, 사지 재건, 림프부종 재건 등에 대한 다양한 케이스를 다루었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궁금증이 있을 때마다 교수님들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었다.

우리 병원 연수 프로그램의 장점은

팀원들과 함께 케이스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고, 수술 과정을 직접 보고 따라하면서 수술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다. 각종 포럼과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지식을 쌓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하기도 했다.



세계미세재건학회에 참석한 페라스 알쇼머 임상강사와 성형외과 최종우 교수(오른쪽 첫 번째, 두 번째).

미세수술 실습실에서 공부하고 로봇수술 세션에 참여했던 것도 정말 좋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난해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1회 세계미세재건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3개의 초록이 채택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서울아산병원의 멘토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한국에서의 일상은 어땠는지

쉬는 날에는 서울 이곳저곳을 구경했다. 특히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는 시간이 정말 좋았다. 인천, 속초, 부산 여행도 다녀왔는데 다음에는 제주도에 가보고 싶다. 한국 음식도 빼놓을 수 없다. 숯불에 구운 한우를 제일 좋아하고, 떡볶이는 너무 맵긴 했지만 맛있게 먹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은 문화적으로 많이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 한국 친구들을 사귀고 보니 오히려 비슷한 점이 정말 많았다. 내 커리어, 내 인생에 맞지 못할 시간을 안겨준 서울아산병원의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두경부 재건 수술을 참관하고 있는 페라스 알쇼머 임상강사(가운데).



성형외과 의료진과 함께 기념촬영. 원 안이 페라스 알쇼머 임상강사.

※ '웰컴 투 AMC'는 우리 병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해외의학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은 숨겨진 한국 고대사④

페르시아 서사시에 기록된 황금의 나라, 신라



치과 이부규 교수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는 삼국 중 가장 늦게 번성했고 국력도 상대적으로 약했다. 하지만 국력이 약하다던 신라도 통일 이전에 이미 황제국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교과서에도 나온 진흥왕(540~576년 재위) 순수비(巡狩碑)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미 신라는 독자 연호를 사용했고 황제가 사용하는 표현인 '짐'을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국력을 키우고 외교력도 발휘한 신라는 결국 삼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게 된다. 당나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정복한 후 신라와 영토를 나누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신라의 뒤통수를 치려 하자, 문무왕은 기꺼이 당나라에 선제공격을 하며 7년간의 나당 전쟁(670~676년)을 시작한다. 세뇌된 우리 역사외식 속에서 당시 두 나라 국력의 차이는 현재의 우리나라와 미국 정도는 되는 듯한데 감히(?) 신라가 선제공격을 한 것이다.

문무왕은 신라에 충성을 맹세한 고구려의 마지막 왕자 고안승을 고구려 지역의 왕으로 임명하고, 함께 과거 고구려의 지역이던 신성(황하 동쪽)을 점령하고 당나라 군대를 석문(황하 접경)까지 쫓아낸다. 이어 한반도와 중국 동부 해안의 백제 지역을 수복함으로써 기존 백제 지역의 64성을 되찾아 비로소 통일신라를 완성한다. 이후 신라에 투항하지 않은 고구려 세력이 세운 발해(698년 건국)에 요동반도와 북만주 지역을 내주게 되지만, 통일신라의 영토 역시 우리가 일제시대부터 배운 평안도의 대동강 이남이 아님은 분명하다. 즉 한반도를 포함한 만주 지역, 중국 산둥반도 일부 및 중국 동해안 일대가 우리 조상들의 영역으로 다시 확보된 것이다.

이는 비단 사서의 기록에서뿐만 아니라 이 지역들에 현재도 남아 있는 수많은 신라 관련 지명 및 향토 전설로도 증명된다. 특히 이를 증명하는 당시 중요 사료로 일본 승려 엔닌의 여행기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 838~847년)」가 있다. 이 책에는 엔닌이 일본의 규슈에서부터 당나라 장안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여정과 그 가운데 만난 사람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통 및 출·입국 허가 등이 모두 신라 사람들 및 대륙의 신라 관청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내용만 보서는 당나라의 출·입국 사무를 신라가 다 하는 등 신라가 마치 대륙 안에 있는 나라처럼 느껴진다.

신라의 다른 수도가 중국 대륙에? 신라의 수도인 서라벌이 '동경'으로 불린 것도 특이하다. 만일 현재의 경주를 동경이라고 불렀다면 혹시 다른 방위의 이름을 가진 수도도 있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현재 중국의 안휘성(安徽省) 일대를 주목한다. 이미 KBS 다큐멘터리 <역사스페셜>에서도 여러 번 방송이 됐는데, 그곳에는 신라 특유의 지명과 동일한 지명이 신기할 정도로 집중돼 있고 경주 김 씨의 시조인 김일제(김알지)를 모시는 김 씨 집성촌도 있어 종친 대표가 인터뷰를 하기도 한다. 「삼국사기」 신라조에 빈번하게 등장해 학자들의 의구심을 자아낸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없는 대규모 메뚜기떼의 습격이 나타날 수 있고, 주산물로 자주 등장하는 물소와 낙타가 잘 살 수 있는 곳은 경주보다는 이곳이 더 적합하다.

아울러 고등과학원(KIAS) 물리학부 박창화 교수가 고대 삼국의 일식 최적 관측지를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초기 신라의 일식 기록 지점은 안휘성 일대와 일치하고, 이후의 일식 기록 지점은 현재의 경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일식 기록에 근거한다면 북방 돌궐계인 경주 김 씨가 안휘성 일대에서 현재의 경주 지역으로 이동해 박 씨, 석 씨의 세력과 연합해 신라를 건국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이는 필자도 아직은 동의하기 쉽지 않다. 다만 산둥에서 양자강 중·하구까지 수많은 신라 지명 및 유적들이 남아 있고 중국 대륙의 백제 지역을 신라가 흡수했을 것임을 종합해 보면, 신라는 삼국통일 후 현재의 경주를 제수도로 두어 정치, 경제의 중심으로 삼고 당 및 서역으로의 무역을 총괄하는 경제수도로서 안휘성을 포함한 양자강 하류 지역을 주요 거점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만주가 기반인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의 황실 성은 '애신각라(愛新覺羅)'이다. 여진족이 고려시대에 세운 금(金)나라의 황실 시조도 거슬러 올라가면 김(金)씨인 신라 사람이었다. 애신각라의 의미는 '신라를 사랑하고 잊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듯 신라 사랑이 각별했던 청나라는 자신들의 정사인 「만주원류고(滿洲源流考)」에 자신들은 '신라를 잇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통일신라가 대동강 이남에 그치는 조그만 나라였다면, 만주 지역이 주무대였던 북방의 여진족이 스스로를 신라의 후손이라고 하는 게 영 어색하다.

페르시아 서사시 속의 신라 통일신라의 국제성과 국력을 입증하는 또 다른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과거 페르시아 왕국인 현재의 이란에 전해오는 유명한 서사시 '쿠시나메'가 2010년에 우리 학계에 처음 소개됐는데, 시의 내용 상당 부분이 신라와 관련돼 있다. 쿠시나메에서 신라는 황금이 넘치고 문화가 발달해 페르시아 사람들이 꼭 가보고 싶은 이상향으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페르시아의 동방 무역은 거의 신라 상인들과 이루어지는 듯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당시 아시아 무역은 중국 동부 해안의 양자강 하구인 양주를 교역의 중심지로 하고 페르시아와 신라가 두 축을 담당한 듯하다. 원래 한족(漢族)은 중원 깊숙한 곳에서 시작했기에 해양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고, 한족이 세운 나라들의 수도 역시 늘 내륙 깊숙한 곳에 있었다. 따라서 상업과 무역을 경시한 성리학의 나라 조선이 세워지기 전까지, 동북아시아의 해상 무역은 주로 우리 조상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중국 4대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는 나침반(羅針盤)도 실은 신라인들이 발명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나침반의 '나'는 신라의 '라(羅)'와 같은 글자로, 그 의미는 '신라의 침반'이다. 당시 해운을 장악한 신라인의 특성을 생각하면 매우 그럴듯하다. 중국은 나침반이라는 이름도 언제부터인가 '자침계'로 바꿨다. 경주에서는 지금도 로마제국의 대표 유물인 로만글라스에서부터 당시 아제르바이잔에서 유행한 황금보검에 이르기까지, 만일 신라가 아시아 귀퉁이의 한반도 절반 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였다면 결코 어울리지 않았을, 글로벌하고 럭셔리한 유물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다. 따라서 학창 시절 역사 수업에서 통일 후 오히려 '조막만 해진' 통일신라 영토를 배우며 '아니, 고구려가 통일을 했어야 했는데 하필 신라가 통일을 해서...'라고 아쉬워했던 생각은 이제 바뀌도 좋을 듯하다.

통일신라는 우리 역사상 가장 국제적이고 부유한 나라였다. 발해도 분명 우리의 역사지만, 사료의 부족으로 소개하지 못한 양해를 구한다. 다음 편은 5회 연재의 마지막 편으로, 왜 우리 역사가 이렇게 왜곡되고 축소됐는지에 대해 설명해보겠다.

※ '이야기가 있는 산책' 코너는 필자의 전공 분야와 인접한 주제 또는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평소 개인적으로 관심을 두고 살펴온 분야를 산책하듯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스물다섯 번째 필자로 치과 이부규 교수가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는 한국 고대사를 주제로 5편의 글을 연재합니다.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하기 위해 걷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산책'처럼 이 코너를 통해 마음의 휴식과 건강을 챙기길 바랍니다.

※ 이부규 교수는 2002년부터 우리 병원 치과·구강악안면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7년부터는 중증 턱관절 장애 치료 및 고난도 양악 수술에 집중하며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다. 군위관 시절부터 소위 재야 사학자의 관점에서 한국 고대사를 탐구해왔다. 중국의 동북공정 등으로 인해 왜곡된 우리 역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에 하루빨리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힘을 합쳐 대처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24시간 빠르고 정확한 검사가 가능한 이유

진단검사의학팀 강다영 대리·강민구 사원



“
숙련된 기술과 컨디션 관리로
환자 만날 준비를 합니다.”

1분을 위한 일상과 진심

‘예전에 병동 창가 자리에 계셨던 분?’ 어딘지 낯익은 팔을 마주했다. 신입 시절, 혈관이 잘 잡히지 않아 ‘나는 왜 채혈을 잘 못할까?’ 망연자실하게 만든 환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단번에 비늘을 꽂아 넣을 수 있었다. “제 혈관이 찾기 힘들다고들 하던데 선생님은 잘하시네요!” 강 대리를 기억할 리 없는 환자의 칭찬에 그동안의 경험과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뻐다.

다음 달부터 소아 채혈을 담당한다. 그 기간에는 되도록 저녁 약속을 잡지 않는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싶어서다. 아기들의 혈관이 워낙 가늘기도 하지만 병원 생활을 오래 한 아이들은 팔만 만져도 울기 시작한다. 울다가 토하거나 청색증이 오기도 해서 지켜보던 부모에게 눈물이 번진다.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채혈을 끝내겠다는 각오다. 환자와 만나는 시간은 불과 1~2분. 임상병리사로서 그 순간에 모든 일상을 맞추며 환자들에게 진심을 다하고 있다.



강다영 대리가 채혈실에서 외래환자 채혈을 하고 있다.



강다영 대리가 병동에서 채혈 업무를 하는 모습.

“
매일 8시간씩 300여 명의 환자를
채혈하고 있습니다.”

채혈 경력 12년의 임상병리사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새벽 6시. 채혈 유닛의 강다영 대리는 채혈 전용 카트와 함께 진단검사의학팀을 나선다. 병동에서 환자들을 채혈하는데 새벽부터 잠을 깨웠다며 역정을 내는 환자도, “집에서 키우던 닭이 낳은 건데...”라며 계란을 쥐여주는 환자도 만난다. 예정된 병동 업무가 끝나면 신관 1층 채혈실로 가서 외래환자 채혈을 시작한다.

12년 전 채혈실에 처음 배치됐을 때는 부담이 컸다. 임상병리학을 전공하고 면허증까지 획득했지만 처음 마주하는 사람의 팔에 비늘을 넣으려니 덜덜 떨렸다. 특히 오랫동안 치료받은 중증 환자들은 팔의 혈관이 약해지고 잘 보이지 않아 손등, 발등, 목 등에서도 혈관을 찾아 채혈해야 했다. 틈틈이 가족과 친구들을 붙잡고 혈관 찾는 연습을 했다. 그때부터 TV를 보거나 버스에 타면 사람들의 혈관을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다.

“
검사하는 검체 하나하나에 사연이 있다는 걸
실감한 사건이 있었어요.”

검체의 의미

지난 4월, 강민구 사원의 어머니가 패혈성 쇼크로 응급실에 실려 온 적이 있다. 그날 다루는 검체 중에 어머니의 검체도 포함돼 있었다. 어머니의 검사 데이터를 확인하는 순간, 글자의 빨간색만 눈에 들어왔다. 수치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수준이라는 의미였다. 눈물이 쏟아졌다. 다행히 어머니는 빠른 치료 끝에 회복할 수 있었다. “아들이 이렇게 실력 있는 병원에서 일하는 게 자랑스러워. 그런데 지금도 그때 네가 느꼈을 충격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네”라며 어머니는 오히려 강 사원을 걱정했다.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지만 임상병리사로서 확실한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다. 검체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가족이고 검체마다 지나간 사연을 담고 있었다. 평소에 작은 수치의 차이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배워왔다. 그래서 늘 신중하게 업무에 임하긴 했지만 그 말의 구체적인 의미까지는 미처 알지 못했다. 새벽 2시부터 밀려오는 검체 처리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데이 근무자들이 출근하고 있었다. 시계는 벌써 오전 8시를 가리켰다. 매일의 업무 목표는 간밤에 요청 온 검사를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인계하는 것이다. 오늘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기분 좋게 퇴근을 준비한다.



강민구 사원이 체액 검사용 슬라이드를 현미경으로 검사 중이다.

“
언제든 응급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야간신속검사실의 밤

오후 5시 30분. 조금 한산해진 병원에 임상화학 유닛의 강민구 사원이 들어선다. 지난해부터 주말이나 명절 구분 없이 교대로 진단검사의학팀의 밤을 지키고 있다. 5명의 임상병리사가 접수와 응급화학 검사, 혈액가스 검사, 응급혈액 검사, 체액 검사를 나눠 맡는다. 체액 검사용 슬라이드를 보며 암세포나 비정상적인 세포를 찾는 중에도 병동의 추가 처방과 검체는 계속 내려온다. 응급실에서도 신속 검사 요청을 수시로 보낸다. 갖가지 업무의 순번을 정하고 챙기느라 머릿속이 분주하지만 잠시라도 침착함을 잃어서는 안된다. 진단검사의학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도관리는 장비나 환경 요소뿐 아니라 작업자의 숙련도를 포함하고 있다. ‘뭔가 이상한데?’ 순간 데이터 하나가 눈에 띄었다. 정말로 환자의 몸이 안 좋은 것인지, 채혈 과정이나 전처리 과정에서 생긴 이상인지 분간하기 위해 즉시 재검을 진행했다. 데이터만 보고 상황을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할 때면 알아주는 사람은 없지만 ‘나도 경험이 조금씩 쌓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뿌듯해진다.



강민구 사원이 혈액응고 검사장비의 시약을 교체하고 있다.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최소 훈련 시간을 뜻합니다. 우리 병원에는 숨은 전문가가 많습니다. ‘잡(job)·담(談)’ 코너는 각 분야 전문가에게서 일의 수고와 기쁨을 들어봅니다.

소라페닙으로 치료한 갑상선암에서 말초혈액 염증표지자의 예후 예측



내분비내과 김미화 진료전임강사

내분비내과 김미화 진료전임강사는 제41회 대한내분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소라페닙으로 치료한 갑상선암에서 말초혈액 염증표지자의 예후 예측'이라는 주제의 연구로 최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내분비내과 김원구 부교수의 지도로 진행된 이 연구결과는 방사성요오드 불응성 갑상선암 환자의 소라페닙 치료 시작 전에 말초혈액 염증표지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Q. 연구의 배경은? 대부분 분화 갑상선암의 예후는 좋은 편이나 방사성요오드 불응성 갑상선암의 경우 예후가 불량하며 현재 소라페닙과 렌바티닙 두 가지 약제가 치료에 허가를 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갑상선암에서 숙주면역은 매우 중요하며 종양조직에 침윤하는 림프구, 단핵구 등 염증세포들은 종양의 진행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종양 세포의 미세환경은 직접 확인이 어려운 단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말초혈액의 염증세포를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선행 연구로 본원에서 소라페닙을 사용하는 방사성요오드 불응성 갑상선암 환자 약 4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말초혈액의 림프구/단핵구 비율로 해당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음을 보고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다기관 후향적 연구로 더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림프구/단핵구 비율의 예후 예측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이외 기타 말초혈액 염증표지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보려 했다.

Q. 연구에 대해 설명하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소라

페닙으로 치료받은 국내 6개 기관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 시작 전 림프구/단핵구 비율, 호중구/림프구 비율, 혈소판/림프구 비율을 측정했다. 각 염증표지자들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분류했고, 무진행 생존기간과 생존기간을 비교했다. 3가지 염증표지자 모두 무진행 생존기간과 유의미한 연관이 있었으며 특히 낮은 림프구/단핵구 비율은 여러 교란변수들을 보정했을 때에도 대조군에 비해 짧은 무진행 생존기간을 보였다. 또한 전체 생존기간을 분석했을 때에도 3가지 염증표지자 모두 예후 예측에 도움이 됐다.

Q. 앞으로의 연구 계획은? 본 연구는 방사성요오드 불응성 갑상선암 환자에서 소라페닙 치료 시작 전에 말초혈액 염증표지자가 치료 예후 예측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말초혈액 염증표지자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더 이해가 필요하며 직접적인 종양조직의 미세환경과도 연관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라페닙이나 렌바티닙 치료과정에 말초혈액 염증표지자의 변화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를 계획 중이다.

※ 우리 병원이 내놓은 여러 연구성과는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보에서는 '연구노트' 코너를 통해 우리 병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대화와 공감의 힘



암병원간호팀 박지연 사원



박00님은 유방암 판정을 받은 뒤 부산에서 홀로 우리 병원을 찾아왔다. 많지 않은 나이에 암이라는 질환을 처음 접한 환자는 입원 후 검사를 받는 내내 두려움과 걱정을 홀로 견디며 내며 줄곧 눈물을 흘렸다. 커튼을 열고 들어갔을 때 보호자 없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환자에게서 짙은 쓸쓸함이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밤 11시까지 담당할 간호사입니다. 혈압 한 번 재고 내일 있을 검사에 대해 설명드릴게요"라고 말을 했을 때 환자는 "네"라고 짧게 대답할 뿐 잠깐의 시선조차 주지 않고 걱정이 가득한 모습이었다. 환자의 책상 위에는 유방암과 관련된 신문기사와 책 등 공부한 흔적이 가득했다. 걱정스런 마음에 말을 꺼내보았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간호사한테 말씀을 해주셔도 돼요. 잘 설명해 드릴게요. 혼자 걱정하면 스트레스만 받고 마음이 힘들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꼭 말씀해 주세요." 환자는 일을 하는 중에도 홀로 창밖을 보던 환자의 모습이 떠올라 시간이 있을 때마다 환자에게 다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떠세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환자가 처음으로 내게 말을 꺼냈다.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저한테 이렇게 신경을 써준 간호사는 처음이네요. 유방암을 진단받고 멀리서 혼자 이곳에 오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돼요. 아들을 혼자 두고 있는데 항암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슬

퍼요." 나는 불안해하는 환자의 손을 잡아주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초기일 때 발견이 됐으니까 항암을 잘 받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라고 다독이며 응원의 말을 건넸다. 여러 검사를 마치고 퇴원하는 날, 환자는 처음 만났을 때 보였던 그늘진 얼굴이 아닌 환한 웃음으로 날 맞이해줬다. "환자에 대한 사무적인 태도가 아니라 저를 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져주고 걱정을 해준 덕분에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내겠다는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보호자가 옆에 없는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 걱정을 나누고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간호사로서 보람이 느껴졌다. 이후 시간이 흘러 환자는 수술을 받기 위해 다시 입원을 했다. 그때도 가족 없이 혼자 올라온 환자는 먼저 나를 발견하고 말을 건넸다. "이번에는 수술을 받으러 왔어요. 선생님을 또 뵈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환자는 모든 항암 치료와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퇴원을 했다. 간호사로서 환자들의 말을 옆에서 귀담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과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대화와 공감은 환자와 나 사이의 벽을 허물고 진심을 나눌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었다. 앞으로 환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

※ '어느 간호사의 다이어리'는 환자 곁에서 간호사가 적어 내려간 희망과 극복의 생생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세대 갈등, 비난보다 합의가 필요해요



건강의학과 안명희 임상전임강사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기원전 1,700년경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점토판에서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형태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대 갈등은 수천 년 전부터도 존재했습니다. 한국리서치의 「2022년 세대 갈등 인식 지표」 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0%가 넘는 것을 보면 어느 때보다도 세대 간 갈등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요즘의 기성세대와 신세대는 조롱과 비난을 담아 서로를 ‘MZ 세대’와 ‘꼰대’로 칭합니다. MZ 세대는 198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까지 꽤 넓은 범주가 포함되다 보니 젊은 세대에서도 더 어린 사람을 향해 MZ 세대라 칭하며 이들과의 관계를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직장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일하는 곳입니다. 조직에는 늘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며 새로운 업무 관련 이슈가 생깁니다. 기성세대가 이미 공기처럼 익숙해져 당연하다 생각하는 조직 문화, 분위기, 업무 지시에 대해 새롭게 합류한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이 업무는 왜 제가 해야 하나요?’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왜 일찍 나와야 하나요?’ ‘회식은 왜 참석해야 하나요?’ 의문을 갖지 않던 일이 질문으로 돌아오면 기성세대는 생경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이 의문에 설득력 있는 답을 얻지 못하고 ‘나 때는 말이야’ 류의 훈계를 들으면 더 이상 질문하거나 소통하기를 멈춥니다. 이들 서로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렇기에 ‘같이 일하면 불편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논란을 단지 ‘세대’가 다른 문제로 규정짓는다면 해결은

요원한 일이 됩니다. 세대 갈등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이미 직장 내 기성세대로 자리하고 있는 선배가 새로 들어오는 후배의 생각을 이해해 보려 노력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배는 후배와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후배는 선배와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갈등이 기인할 수 있습니다. 선배는 이러한 생각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후배 세대는 이전보다 더 체계화된 사회에서 성장했고 개인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에 서 자랐습니다. 후배들의 의문에 비난을 하기보다는 지금껏 이와 같은 체계와 문화가 유지되어 온 이유에 대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후배는 선배에게 배울 점과 받아들여야 할 점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딪히는 지점은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공존하는 법을 익혀 나가야 합니다. 최근 화제인 SNL 코리아의 ‘MZ 오피스’를 보면 회식 때 고기는 누가 구워야 하는지, 에어팟을 끼고 근무해도 되는지 등이 사례로 나와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저 씩씩한 웃음만을 남기지 않으려면 실용적인 지침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90년생이 온다」의 저자 임흥택 작가는 ‘에어팟’ 에피소드의 합의점 사례로 업무 특성상 대면 소통이 필요하다면 에어팟을 쓰지 않도록 하되 메신저 소통으로 충분하다면 허용하는 것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각자가 경험한 세대 갈등의 모습을 떠올려보고 합의 도출을 위한 방향 전환을 고심해 보셨으면 합니다.

※ 안명희 임상전임강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2017년 건강의학과에 입사해 스트레스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마음지기’ 담당교수로서 직원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병원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맞습니다. 직원들의 크고 작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마음건강노트’ 코너를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의료정보관리팀 한수빈 **사원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해서
진료정보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맡고 있는 업무는 의료정보관리팀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검토해 진단 및 수술 코드를 분류하고 의무기록 완결도를 점검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요. 병원의 의료 정보는 국가 보건 의료 분야의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은 지금은 정보분석 유닛이지만 처음에는 서식/권한 유닛에서 의무기록 서식 생성 업무를 맡았습니다. 새로운 양식의 의무기록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담당 선생님과 소통을 하면서 의무기록을 완성했어요. 나중에 해당 의무기록을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선생님이 먼저 다가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준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진단 코드를 문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해당하는 코드를 확인해 알려드리는데 그때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진단 및 수술 코드를 분류하는데 상급종합병원이다 보니 중증 환자가 많아서 복잡하고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해당 질병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고 통계청에서 나오는 지침서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일상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 몸이 쉽게 피곤해져서 체력을 기르기 위해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전에는 다이어리를 쓰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올해는 운동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앞으로 목표는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로 진료 통계를 산출해 진료정보를 생성하기 때문에 임상과 진단, 수술 코드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데이터와 통계에 대한 지식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 통계 관련 교육에 참석하고 끊임없이 공부해서 진료정보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입사 후 코로나19로 활동에 제약이 있었는데 올해는 여행을 다니고 외국어도 배우는 등 알차게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 ‘AMC 루키’는 각 부서의 신입직원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본인을 알리고 싶은 신입직원,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겨울 제철 과일로 비타민 충전해요

두꺼운 외투와 방한용품 없이 문밖을 나서기 어려운 겨울. 실내·외 큰 온도차에 적응하느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울 때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비타민C 함유량이 높은 딸기와 한라봉은 2월이 제철. 새콤달콤한 딸기와 한라봉을 활용한 레시피로 입맛과 건강을 모두 챙겨보자. <편집실>



씹을 때마다 툭툭 느껴지는 씨, 은은한 향과 달콤한 맛을 가진 딸기에는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특히 딸기 여섯 개 정도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를 모두 섭취할 수 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여 겨울철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딸기 안에는 항산화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딸기 속 엘라그산은 기미, 주근깨를 만드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피부를 탄력 있고 윤기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딸기 생크림 롤

- **재료** 딸기 6개, 식빵 3장, 생크림 1/2컵, 설탕 1큰술
- **조리법**
 - 1 딸기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 다음 칼로 꼭지를 반듯하게 잘라낸다.
 - 2 볼에 생크림과 설탕을 넣고 크림이 단단해지도록 거품기로 힘차게 친다.
 - 3 식빵은 가장자리를 잘라내고 밀대로 얇게 민다.
 - 4 거품기로 치대서 만든 크림을 식빵에 바르고 딸기를 올려 김밥 말듯 돌돌 만든다.
 - 5 먹기 좋게 반으로 잘라 그릇에 담는다.
- **TIP** 모양을 예쁘게 유지하고 싶다면 식빵으로 딸기를 돌돌 만 다음 랩으로 단단히 감싸 1시간 정도 냉장 보관한다.

이런 딸기가 맛있는 딸기다!

- 광택이 나고 과육은 단단하며 모양이 예쁜 딸기
- 꼭지가 마르지 않고 진한 푸른색을 띠는 딸기
- 과육의 붉은 빛깔이 꼭지 부분까지 돌도록 잘 익은 딸기

딸기 포리지

- **재료** 딸기 10개,オート밀 1컵, 우유 2컵, 시리얼 1큰술, 코코넛 슬라이스 1큰술, 메이플 시럽 2큰술
- **조리법**
 - 1 딸기는 깨끗이 씻어 꼭지를 떼고 6개는 믹서에 갈아 푸레로 만든다.
 - 2 나머지 딸기는 반으로 썬다.
 - 3 냄비에オート밀과 우유를 넣고 센 불에 올려 끓어오르면 불을 약하게 줄이고 딸기 푸레를 넣어 저으면서 10분간 끓인다.
 - 4 그릇에 담고 딸기, 시리얼, 코코넛 슬라이스를 올리고 메이플 시럽을 뿌린다.
- **TIP** 메이플 시럽이 없다면 거의 다 끓었을 때 설탕을 넣고 녹여서 기호에 따라 단맛을 맞춰 먹으면 된다.

*포리지(porridge)는 우리나라의 죽과 비슷한 음식이다. 영국에서는 아침 식사로 즐겨 먹는데 주로 곡물을 이용한다.



특 튀어나온 꼭지 부분의 모양이 한라산을 닮았다고 해서 한라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감귤과 비슷하지만 맛과 향이 훨씬 더 길고 풍부하며 껍질도 두툼하다. 뛰어난 '천연 항산화제'인 한라봉은 특히 비타민C 함유율이 높아 피로 해소 및 감기 예방 효과가 뛰어나며 면역력 향상은 물론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한라봉청

- **재료** 한라봉 과육 300g, 레몬즙 30g, 설탕 260g
- **조리법**
 - 1 한라봉은 깨끗하게 세척한 뒤 물기를 제거한다.
 - 2 겉껍질을 제거하고 속껍질을 벗겨내 과육만 사용한다.
 - 3 설탕, 레몬즙을 넣어 주걱으로 살살 잘 섞는다.
 - 4 설탕이 완전히 녹으면 소독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한다.
 - 5 일주일간 숙성한 뒤 음료 베이스로 사용한다.



한라봉청을 이용한 한라봉 민트 에이드

- **재료** 한라봉청 5큰술, 탄산수 200ml, 얼음, 생 페퍼민트 잎(또는 건과일)
- **조리법**
 - 1 유리컵에 민트 잎을 넣어 맛과 향이 올라오게 살짝 으깬다.
 - 2 유리컵에 한라봉청을 용량만큼 넣는다.
 - 3 얼음을 컵의 절반 이상 채우고 탄산수 200ml를 붓는다.
 - 4 건과일 또는 민트로 장식해서 마무리한다.
- **TIP** 한라봉청은 2개월 동안 냉장 보관이 가능하다.



한라봉 낙지 무침

- **재료** 낙지 300g, 한라봉 1개, 양파 1/4개, 미나리 1/2줄, 홍고추 1개, 밀가루 1큰술, 소금 1작은술, 참깨 1/3작은술, 양념장(설탕 1큰술, 고추가루 1큰술, 다진 마늘 작은술, 고추장 2큰술, 참기름 1작은술, 식초 2작은술)
- **조리법**
 - 1 낙지는 눈, 내장, 입을 제거한 뒤 밀가루 1큰술로 비벼 씻어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헹궈준다.
 - 2 끓는 물 4컵에 소금 1작은술과 낙지를 넣어 30초간 데친 뒤 찬물에 헹궈준다.
 - 3 한라봉은 껍질을 벗겨 절반은 납작 썰고, 나머지 절반은 즙을 짜준다.
 - 4 양념장에 한라봉 과즙을 섞어준다.
 - 5 양파는 얇게 채 썰고, 미나리와 데친 낙지는 비슷한 길이로 썰고, 홍고추는 반 갈라 씨를 뺀 뒤 짧게 채 썰어준다.
 - 6 양파, 미나리, 낙지, 양념장을 섞어준다.
 - 7 한라봉과 홍고추를 넣어 가볍게 섞은 뒤 접시에 담아 참깨를 뿌려 마무리해준다.

맛있는 한라봉 고르는 법

- 껍질이 얇은 한라봉이 당도가 높다.
- 껍질이 많이 들떠있거나 주름이 많이 진 한라봉은 너무 시거나 싱거운 경우가 많다.
- 금방 수확한 한라봉은 푸석하고 즙이 적으며 진한 맛이 없어 피하는 것이 좋다.

※ 자료 제공 : 영양팀 김초롱 사원

※ 자료 출처 : 농촌진흥청, 네이버 요리백과, 「국가 표준 식품성분표(제9개정판)」, 「계절과일 레시피」, 「식재료 사전」, 「1% 맛있는 과일 고르는 법」, 「그린멜로즈의 사계절 그린 레시피」

이달의 취향저격 SNS



우리 아이 열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외과병동 간호사이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성인 환자 위주의 간호를 하다 보니 정작 우리 아이가 열나고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콘텐츠를 통해 저희 아이들이 아플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외과간호1팀 김영현 대리



서울아산병원 4개월차 인턴의 '솔직후기'

실제로 근무 중인 인턴 선생님들이 미래의 아산인이 되고자 하는 지원자들에게 솔직한 경험담을 전달해줘서 좋았습니다. 특히 우리 병원의 분위기나 채용 절차를 알차게 소개해, 지원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김현태 레지던트



2022년 서울아산병원 지나온 발자취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였지만 감염관리센터 개소를 통해 감염 관리를 선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질병 치료를 위한 프로세스 구축과 병원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등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내과간호1팀 이지영 대리

구독하고, 감상평 쓰고, 선물 받아주세요!

이벤트 1 1. 서울아산병원 유튜브 구독 또는 인스타그램 팔로우 2. 설문조사 QR코드에 화면을 캡처해서 인증샷 올리기

이벤트 2 1. 서울아산병원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 콘텐츠 감상하기 2. 설문조사 QR코드 링크에 감상평 작성하기



설문조사 QR코드

굿바이 콩글리시

40대는 4개, 50대는 5개, 60대는 6개, 70대는 7개를 먹는다. 무엇이냐? 연령대에 따라 복용하는 약 개수란다. 웬지 납득이 되는 우머 아닌가. 복용지도를 할 땐 환자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약효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그대로 삼키세요'일 것이다. '그대로'라고 하면 'as it is'가 떠오르지만 'whole'이 맞다. 'Swallow it whole'이라고 표현하자.

그대로 삼키세요

- Swallow as it is (sad face)
- Swallow it whole. (happy face)

Let's Talk

- A How do I take this pill? 이 알약 어떻게 먹나요?
- B Swallow it whole. You shouldn't chew or crush. 그대로 삼키세요. 부쉬 드시면 안 돼요.

한파가 매서운 겨울도 중반을 지나고 있다. 계절의 끝자락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철 지난 상품에 대한 '시즌오프' 세일. 과연 원어인도 알아들을까? '시즌오프'보다는 'off-season'이 올바른 표현이다. 대개는 'last season' 또는 'end of season'라고 쓴다.

시즌오프 세일

- season off sale (sad face)
- end of season (happy face)
- (off-season / last season) discount

Let's Talk

- A The shop offers 70% off-season discount. 저 가게 시즌오프 70% 한대.
- B Let's go for it and shop everything! 좋았어. 가서 주워 담자!

Written by 아카데미운영팀 서영미 글로벌전문강사

※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영어 표현 중에 정작 외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굿바이 콩글리시' 코너를 통해 잘못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공유합니다.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 직원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독자엽서를 통해 편집실로 전달됩니다.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독자들의 목소리 일부를 소개합니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의료정보관리팀 김사라 대리

'한 살 백혈병 아기 CAR-T 치료 성공' 뉴스를 읽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난해 CAR-T 치료 관련 전자동역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최첨단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이 여정에 미약하게나마 제가 기여할 수 있어 기쁩니다.

내과간호팀 11기유닛 김소연 과장

'어느 간호사의 다이어리- 힘과 위로를 주고 받으며'를 읽으며 이 글을 쓴 선생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환자들을 간호하다 보면 오히려 제가 간호를 받는 듯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환자의 곁에서 후회 없이 최선의 간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됩니다.

수술간호팀 소미현 과장

'잡(job)·담(談)- 환자와 병원, 따뜻한 세상을 잇는 고리'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동료 직원들의 모습을 생생히 전해주시는 덕분에 오늘도 우리 병원, 우리 동료들을 조금 더 알아가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노사협력팀 김지현 대리

'마음건강노트- 뒷담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코너를 잘 읽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린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팁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건강노트' 덕분에 힘든 상황에서도 잘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앞으로도 마음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

노아청소년과 이정민 임상강사

'문화·생활정보- 설 음식 이렇게 즐겨보아요'를 잘 읽었습니다. 설 음식을 만들다 보면 음식이 남을 때도 많고, 선물로 받은 과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할 때도 많았습니다. 알려주신 레시피로 색다르게 즐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지나호 정답

제692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꼽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잡(job)·담(談) - 환자와 병원, 따뜻한 세상을 잇는 고리'였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의료정보관리팀 한수빈 사원이 추천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